



이청용

박지성

## 박지성·이청용 FA컵 4강 맞짱 관심

‘해결사’ 이청용, 시즌 3호골 팀 승리 견인

‘산소탱크’ 박지성 부상서 회복 출전 채비

‘블루 드래곤’ 이청용(23·볼턴 원더러스)이 결승골을 터뜨리며 소속팀을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준결승전으로 이끌었다. 박지성(30·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빠진 맨유는 아스널을 제물로 삼아 FA컵 4강에 올랐다.

이청용은 12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베밍엄의 세인트 앤드류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베밍엄과의 2010-2011 FA컵 8강전에서 후반 45분 헤딩으로 결승골을 터뜨려 팀의 3-2 승리를 일군 주인공이 됐다.

후반 16분에 교체투입돼 이번 시즌 세 번째 골 맛을 본 이청용은 이로써 공격 포인트를 10개(3골 7도움)로 늘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데뷔 첫해였던 지난 시즌 5골 8도움에 이은 2년 연속 득이수 공격포인트다.

박지성이 부상으로 빠진 맨유도 13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레퍼드에서 치른 아스

널과의 FA컵 8강전에서 전반 28분 파비우 디 살바의 결승골과 후반 4분 웨인 루니의 추가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하며 4강행 티켓을 얻었다.

한편, 볼턴과 맨유가 나란히 FA컵 4강에 오르면서 ‘한국인 더비’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쏟고 있다.

스토크시티-웨스트햄, 맨체스터 시티-팀 레딩(챔피언십) 간 8강 대결이 남아 있는 가운데 추가로 4강에 합류할 두 팀이 가려지면 14일 오전 1시(한국시간) FA컵 4강 대진 추첨이 진행된다. 대진이 정해지면, 다음 달 16일과 17일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각각 결승 진출 티켓을 놓고 싸운다.

이청용과 박지성은 지난해 9월 16일 2010-2011 시즌 프리미어리그 6리운드 경기에서 둘의 첫 맞대결이자 통산 11번째 ‘한국인 더비’를 펼쳐, 2-2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다. /연합뉴스



“세계 1위 서브 받아 봐”

여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인 덴마크의 캐롤린 워즈니아키가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인디언웰스 경기장에서 열린 ‘BNP 파리바스 대회’에서 슬론 스티븐슨에게 서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FC 최강 수원에 아쉬운 1-2 역전패

김동섭 2게임 연속골… 수비불안 보완해야

전남은 ‘제철가 더비’서 포항에 0-1 무릎

K리그 2라운드 경기에 나선 광주·전남이 승리 사냥에 실패했다.

전남 드래곤즈가 13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홈 개막전에서 아사모아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0-1로 패했다.

수원 원정에 나선 광주 FC는 경기 시작 25분만에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용병 마도에게 2골을 허용하며 1-2로 역전패를 당했다.

‘호남 더비’에서 전북 현대를 1-0으로 꺾었던 전남은 포항과의 ‘제철가 더비’에서는 후반 33분 터진 아사모아의 골에 포항전 4경기 연속 무패(3승1무) 행진을 마감했다.

용병은 전반전 공방전을 벌였지만 골문을 엎는데 실패하며 0-0으로 후반전을 시작했다.

을 시즌 전남에 새동지를 둔 국가대표 수문장 출신의 이문재가 후반 초반 아사모아의 강력한 슈팅을 막아내며 선방을 펼쳤지만 후반 33분 아사모아의 오른발을 막지 못했다.

오른쪽 페널티지역에 있던 아사모아가 노병진이 넘겨준 공을 받아 오른발 슈팅을 날렸다. 이문재가 몸을 날렸지만 왼쪽 팔대를 맞은 공은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들어가면서 결승골이 됐다.

앞선 1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우승후보 수원과 대결을 벌인 광주는 후반 수비진이 위축되면서 경기를 풀어가지 못했다.

초반 흐름은 광주가 주도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 소리와 함께 상대 진영으로 과고든 김동섭이 수원 곽희주의 공을 빼앗

아 25초만에 골을 터트리며 1-0을 만들었다. 을 시즌 가장 빨리 터진 골이자 역대 7번째 최단시간 골이다.

광주의 기습 공격에 당황한 수원 수비진은 전열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광주의 파상 공세에 시달렸다.

안박공격이 전개되는 사이 이용·박병주·허재원은 철벽수비진을 구축했고, 진정팀을 상대한 골키퍼 박호진도 선방을 펼치며 최성국·임기훈·개인리히로 구성된 수원 공격진의 발을 묶었다.

하지만 후반 파울 선언이 이어지면서 광주 수비진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수원의 수비수 ‘통곡의 벽’ 마토에게 후반 30분과 35분 포리킥과 페널티킥으로 2골을 연달아 내주며 1-2로 경기가 마무리 됐다.

최민희 감독은 “꼭 주지 않아도 되는 파울을 계속 주니까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선수들이 이 위축되면서 경기를 풀어가지 못했다”면서 “많은 관중 앞에서 경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원 월드컵경기장에는 서포터

즈 ‘빛고을’과 호남향우회 등 2000여명이 찾아 광주 응원전에 나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교육감배 학생검도

#### ‘오치검도관’ 우승

제10회 광주광역시 교육감배 학생검도대회가 12일 광주 서석 종·고체육관에서 개최됐다.

3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초·중·고등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오치검도관(오치삼 관장)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신창검도관(나한일 관장)과 맥심검도관(안명근 관장)은 각각 종합 준우승과 3위에 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T, 창단 7년 만에 프로농구 첫 우승

#### 2위 전자랜드, 모비스에 패하면서 확정

2010-201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우승은 KT의 차지가 됐다.

KT는 13일 강원도 원주치악체육관에서 열린 원주 동부와의 원정 경기에서 87-67로 크게 이겼다.

이날 경기에서 앞서 정규리그 우승 매직넘버 ‘2’를 기록 중이던 KT는 약 45분 늦게 울산에서 시작된 경기에서 2위 인천 전자랜드가 울산 모비스에 72-75로 지면서 우승이 확정됐다.

2003-2004 시즌 도중 코리아랜더를 인수, 2004년 1월 창단식을 가진 KT는 2009-2010 시즌부터 팀 이름을 KTF에서 KT로 바꾸고 이번에 팀 창단 7년 2개월 만에 정규리그 제패의 감격을 누렸다.

종전 이 팀의 정규리그 최고 성적은 지난 시즌의 2위였다.

전반을 34-34로 마친 KT는 후반 칠스로드가 골밑 슛과 자유루트, 다시 골밑 슛과 3점 플레이 등 혼자 8점을 내리 넣어 3쿼터 시작 2분 만에 42-36으로 앞서며 승기를 잡았다.

이어 지난 시즌까지 동부에서 뛰었던 표명일의 3점포로 45-36까지 간격을 벌린 KT는 동부 윤호영, 빅터 토마스에 연속 실점하며 45-41까지 추격을 허용했지만 곧바로 로드, 표명일이 돌아가며 9점을 퍼부으며 54-41로 훌쩍 달아나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KT는 조성민이 19점을 넣어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후보로 거론되는 박상오도 11점을 넣고 리바운드 8개를 잡아냈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www.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 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 경매 전문가 무료 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 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임대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시설/상가

김태호 전무이사 010-684-3886

공장/토지

김한승 이사 010-8033-0114

아파트/빌라

정지아 010-5870-9005

주택 개발

김한승 이사 010-8033-0114

근린주택

김한승 이사 010-8033-0114

부동산 경매 개발

김한승 이사 010-8033-0114

부동산 경매 개발